



미국 메디갭 보험금 증가와 보험료 추세

이아름 연구원

최근 미국에서는 일반 메디케어를 보조하기 위해 민영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메디갭의 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파트 B(의료 보험)의 혜택이 커지며 파트 B 보험금도 더불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메디갭의 보험금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 간의 경쟁 심화로 보험료는 오히려 인하됨. 이에 따라 2018년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높아짐. 반면, 2019년 메디갭 보험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해율은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미국 메디케어 보조 보험(Medicare Supplement, Medigap, 이하 메디갭)의 보험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¹⁾

● 신규 메디갭 보험회사의 보험금은 8% 증가하였으며, 기존 메디갭 보험회사의 보험금은 5% 증가함

■ 메디갭은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를 보조하기 위해 개인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메디케어 보조 보험임

● 메디갭은 본인부담 공제액(Deductible), 코페이먼트(Co-payments), 공동 부담액(Co-insurance) 등 일반 메디케어가 지불하지 않는 의료비용²⁾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일반 메디케어에 가입된 시니어들을 위한 보험임

● 일반 메디케어는 병원 비용 및 입원 후 전문 간호시설 서비스와 추가 일부 기타 전문 진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파트 A(병원 보험)와 의사 진료실 방문 및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타 의료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파트 B(의료 보험)로 나뉨

- 파트 A는 주로 입원 진료 서비스, 가정 건강관리 진료, 호스피스 진료 등 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들을 포함하며, 파트 B는 의사 진료, 외래환자 진료, 앰블런스, 그리고 휠체어, 산소 등 내구성 있는

1) Gen Re(2019. 3), "Medicare Supplement Claim and Rate Trends - and Their Impact on Profitability"

2) 일반 메디케어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의료비용의 80% 정도만 지불함

의료 장비 등을 포함함

- 메디갭은 플랜 A에서 N까지 14가지가 존재하고, 유형별로 제공하는 혜택은 상이함³⁾
 -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요양원에서의 개인 장기치료, 시력이나 치아 관리, 보청기, 개인 간호서비스 또는 모든 처방약 비용은 메디갭에 적용되지 않음
- 메디갭은 연방법 및 주(州)법에 따라 규제되며 동일 유형 플랜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함

■ 메디갭 보험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파트 B(의료보험)의 혜택이 커지며 보험금도 더불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메디케어 신탁보고서(Medicare Trustees Report)에 따르면, 파트 B의 1인당 보험금 증가율이 2017년 3.8% 대비 2.1%p 상승한 5.9%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몇 년간 헬스케어 서비스 발전으로 입원환자는 감소하는 반면, 외래환자는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헬스케어 시스템 비용은 줄어드는 가운데, 메디케어 보험금은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메디갭 보험금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⁴⁾

〈표 1〉 파트 B의 1인당 보험금 증가율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17년 보고서	2.5	2.1	3.8	3.4	6.1
2018년 보고서	2.5	2.1	3.8	5.9	5.0

주: 2017년 보고서에서 2018년과 2019년 수치는 예상치이며, 2018년 보고서에서 2019년 수치는 예상치임
 자료: Medicare Trustees Report(2017, 2018)

■ 반면, 메디갭의 보험금 증가로 인해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 간의 경쟁 심화로 보험료는 인하됨

-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메디갭 신규 보험회사들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는 인하됨
- 대표 10개주(州)의 1위, 10위, 20위 보험회사간 2018년 월평균 보험료는 2015년 대비 인하됨

3) 보험회사별로 동일한 혜택이어도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플랜에서는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4) 예를 들어, 입원환자의 경우, 메디갭은 파트 A에서 본인부담 공제액인 1,340달러(2018년 기준)만 지불하면 되지만, 외래환자의 경우, 메디갭은 파트 B의 보험금 중 20%를 지불해야 함

〈표 2〉 미국 대표 10개주(州)의 2018년 월평균 메디갭 보험료

(단위: 달러, %)

구분	2015년 12월			2018년 12월			감소율		
	1위	10위	20위	1위	10위	20위	1위	10위	20위
콜로라도	113.27	128.17	165.85	109.13	116.75	127.00	-3.7	-8.9	-23.4
일리노이	105.99	115.64	143.86	102.88	110.04	114.92	-2.9	-4.8	-20.1
아이오와	86.61	98.87	155.41	83.91	89.50	94.35	-3.1	-9.5	-39.3
켄터키	103.41	113.67	164.83	97.19	102.09	106.13	-6.0	-10.2	-35.6
미시건	116.76	125.51	159.49	107.42	112.96	120.36	-8.0	-10.0	-24.5
네브래스카	89.57	101.9	137.9	91.13	96.41	101.92	1.7	-5.4	-26.1
노스캐롤라이나	91.84	110.38	174.16	92.06	95.56	99.23	0.2	-13.4	-43.0
오하이오	103.92	118.89	139.88	103.19	108.5	112.95	-0.7	-8.7	-19.3
펜실베이니아	119.04	130.91	140.57	113.43	117.36	121.25	-4.7	-10.4	-13.7
텍사스	103.55	116.28	127.13	97.36	103.95	110.44	-6.0	-10.6	-13.1

주: 플랜 G, 여성, 70세 기준으로 비교함

자료: Gen Re(2019. 3)

■ 이에 따라 2018년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높아졌으나, 2019년에는 메디갭 보험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해율은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메디갭 보험금은 2015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보험료는 6% 감소함에 따라 2018년 손해율은 2015년 70% 대비 14%p 상승한 84%를 기록함
- 2018년 메디케어 신탁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메디갭 보험금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손해율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kiri**